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한 고민

# 지구를 살리는 옷장



김 지 영(GCN독서모임 큐레이터)



# Agenda

- ❑ 거대하고 빨라진 산업
- ❑ 동물을 입는다는 것
- ❑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실천



# 거대하고 빨라진 패션산업

2000년대 패스트 패션산업의 중심 회사 ZARA, H&M.

**ZARA** : 스페인 북부에서 첫번째 매장으로 시작함.

ZARA 설립자 아만시오 오르테가

- 2016년 포브스의 세계 부자 순위 1위
- 한 매장에서 평균 3-4주 넘지 않기

“사람들은 옷을 잠깐 동안만 즐겨야 하며, 그후에는 찬장에  
-----보관하기보다 요구르트, 빵, 생선처럼 금방 버려야 한다.”

ZARA





## **H&M**

2000년 H&M 뉴욕에 첫 매장, 그후 유럽으로 확장함.

2004년 샤넬과 펜디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콜라보레이션  
시작으로 가장 인기있는 디자이너 브랜드와 협업 제품 선보임.

2011년 말에는 2,325개 지점, 2012년 8월 말에는 2,629개 지점을  
개설하였으며 2013년 9월 중국 청도에 3,000번째 지점을 개설.







# 2000년, 패스트 패션을 시작하다

Annual revenue growth



# 2012 타즈린 의류공장 화재



- 방글라데시 타즈린 의류공장에서 **112명** 노동자 사망  
(월 최저임금 **280**달러)
- **8**층 짜리 공장에는 **1천150명**의 노동자가 다국적 의류업체들의 주문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철야작업을 벌이고 있었음.
- 화재 경보가 울리고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공장 매니저들은 노동자들에게 "신경 쓰지 말고 일하라"고 강제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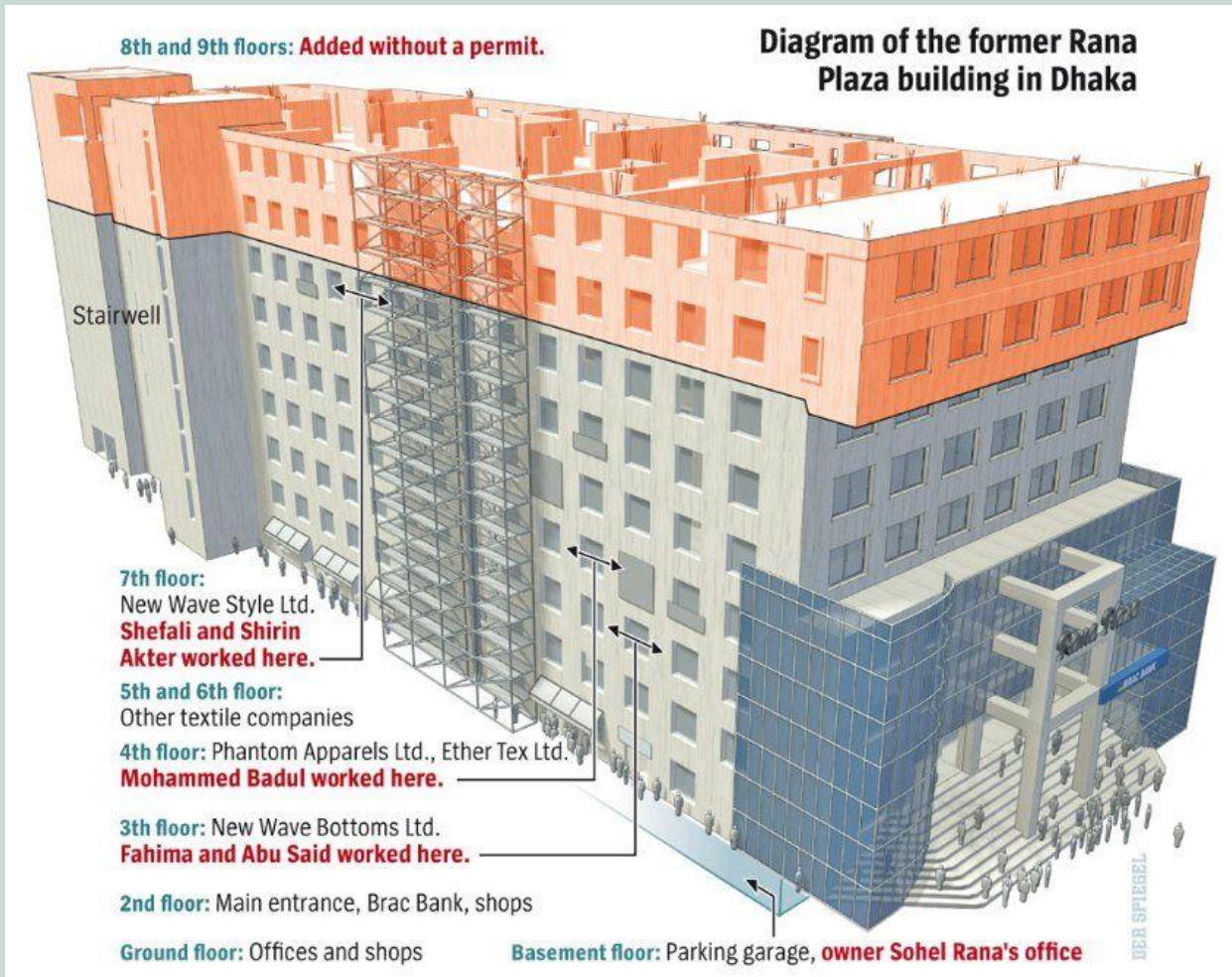


# 2013 라나 플라자 사건





# 라나 플라자 사건



- 구성만 놓고 보면 매우 평범하지만 무허가였음.
- 건물주는 사업이 잘 되자 더 많은 업체들을 입점시켜 돈을 벌려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층 건물을 8층 건물로 무려 2배나 증축을 해버렸음.
- 2017년, 이 사건의 책임자인 소헬 라나가 이 사건의 대한 부패 혐의 인정으로 3년 형을 선고 받음. 1,127명이나 되는 거대한 사상자를 남겼음에도 3년이라는 엄청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임.
- 2018년 기준 방글라데시 의류하청업체 노동자 임금(월67,000원정도)



# 패션혁명의 날 (Fashion Revolution)



4월 24일은 패션혁명의 날이다. 멋과 함께 윤리를 생각하자는 취지의 날이다. [fashionrevolution.org](http://fashionrevolution.org) 패션혁명(Fashion Revolution)이란 우리가 입는 옷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자는 것이다. 아이들을 부려 만든 옷은 아닌지,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 오·폐수 평평 쏟아내는 공장에서 만든 건 아닌지, 관심을 갖자는 것이다. 패션이라고 멋(과 가격)만 따질 게 아니라 기업·소비 윤리도 함께 생각하자는 것이다.

영국 시민들이 2004년 시작한 이 행사에 세계 100여 개국 시민단체 등이 동참하고 있다. 섬유·의류 업종 실태 관련 학술대회나 캠페인을 벌이고, 소비자들은 자기 옷 상품정보 등이 적힌 라벨 사진을 패션혁명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올리며 해당 기업의 하청 실태나 임금 정보 등을 공유하고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2위 의류생산기지(1위는 중국). 약 6,000개 공장에 400여 만 명의 노동자가 고용돼 있다. 2012년 말에도 타즈린 의류공장에 불이 나 112명이 숨졌다. 당시 방글라데시 법정 최저임금은 3,000타카(약 3만8,000원)였다.

사고 직후 H&M사 등은 원청·하청 기업 공장 안전 합의안 등을 마련했고, 정부도 노동법을 개정해 이듬해 초부터 최저임금을 5,300타카(6만8,000원)으로 인상했지만, 노동 환경 및 노동자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의류공장이 밀집한 수출촉진지구(EPZ) 노동자는 노조 가입을 못한다. 2014년 최저임금은 지금도 그대로다. 지난달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연맹(SGSF)은 월 최저임금을 1만 6,000타카(약 20만원)로 인상해달라고 정부 최저임금위원회에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패션 혁명은 노동 인권 및 노동자 생존권 운동이기도 하다.



“

## 로컬의 중요성

희소성의 가치, 패션 생태계의 풍부화, 특별한 경험,  
지역경제 돕기, 로컬의류 공장과 매장의 특별함, 탄소 발생량 줄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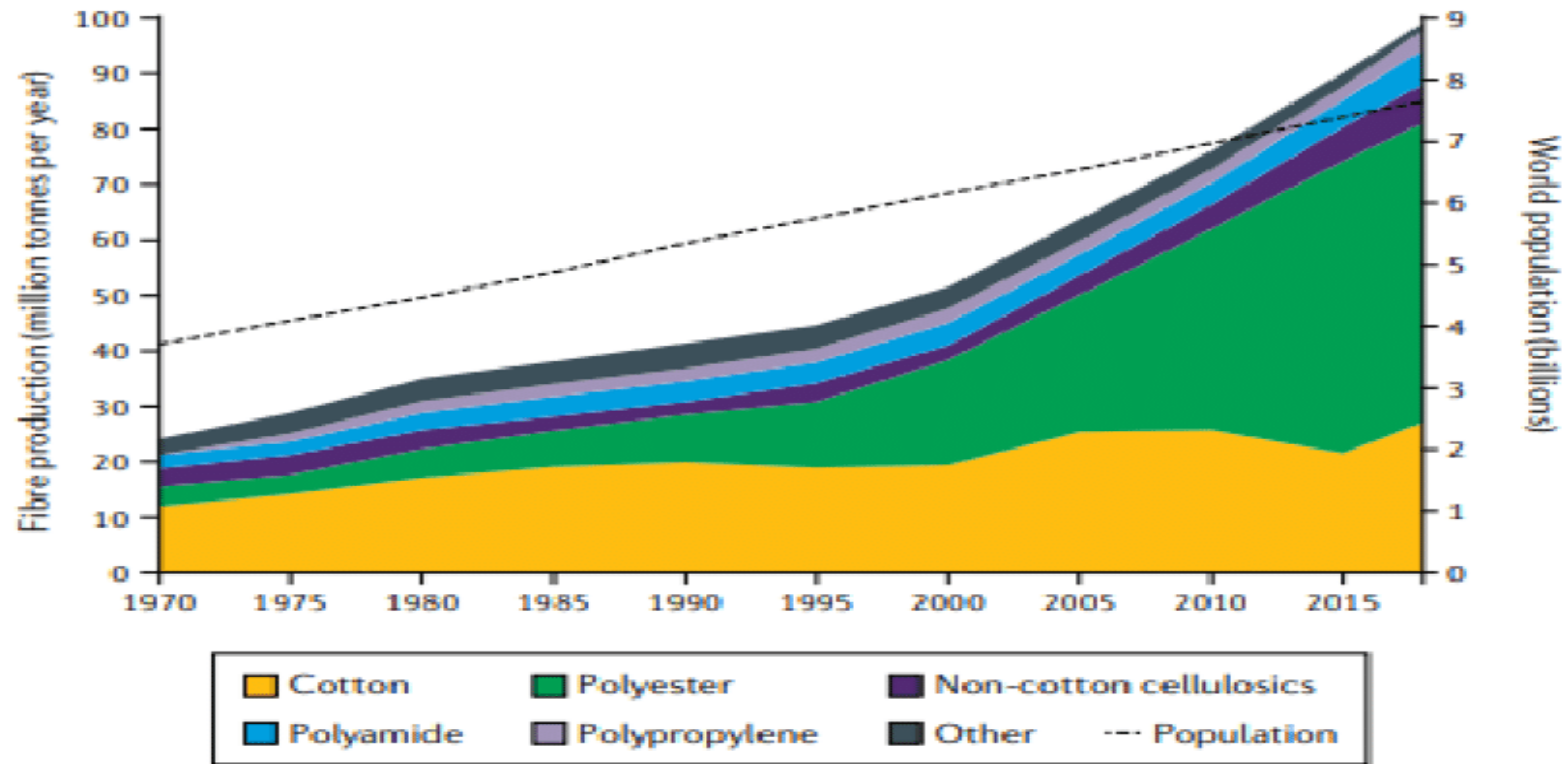
## ❖ 더 나은 소비를 위해

- 저렴한 옷을 자주 구입하기보다는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구입하자
- 스파와 같은 브랜드의 옷을 사더라도 **지속가능한 소재를 사용한 옷**이 그렇지 않은 옷보다 더 낫다.
- 새 옷보다 **중고 의류**를 구입하는 것이 더 낫다.
- 수입한 옷보다 **로컬의 옷**을 구입하는 것이 낫다.
- 로컬 브랜드라도 **제작까지 국내에서 한 것**이 더 낫고, 원단까지 국산이라면 더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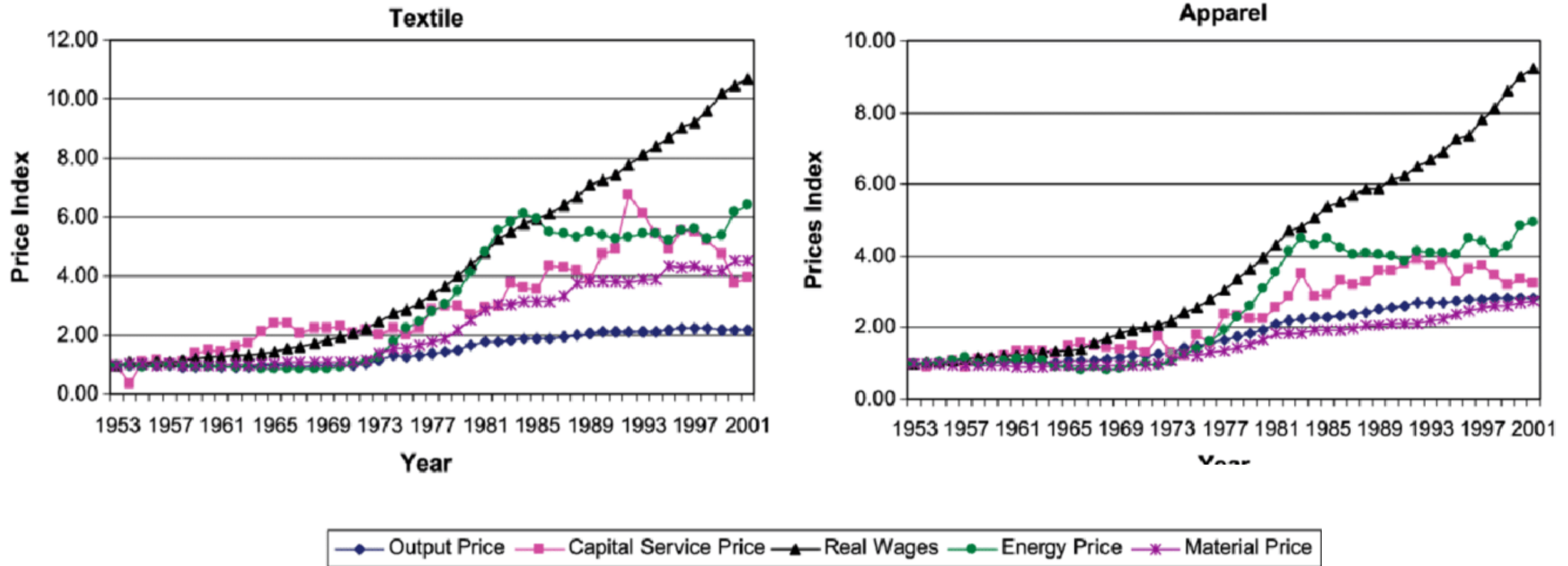
#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미친 영향



Growth in global population and textile production by fiber type (1970-2015) [7]

#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미친 영향

옷을 자주 사고 쉽게 소비하는 우리는 패스트 패션을 위해 태어났다.



#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미친 영향

옷을 자주 사고 쉽게 소비하는 우리는 패스트 패션 노동자들을 생각하지 못했다.

## Where Pay Is Lowest For Cheap Clothing Production

Monthly minimum wage in the global garment industry in 2018 (selected countries)



CC BY ND  
@StatistaCharts

Source: NYU Stern Center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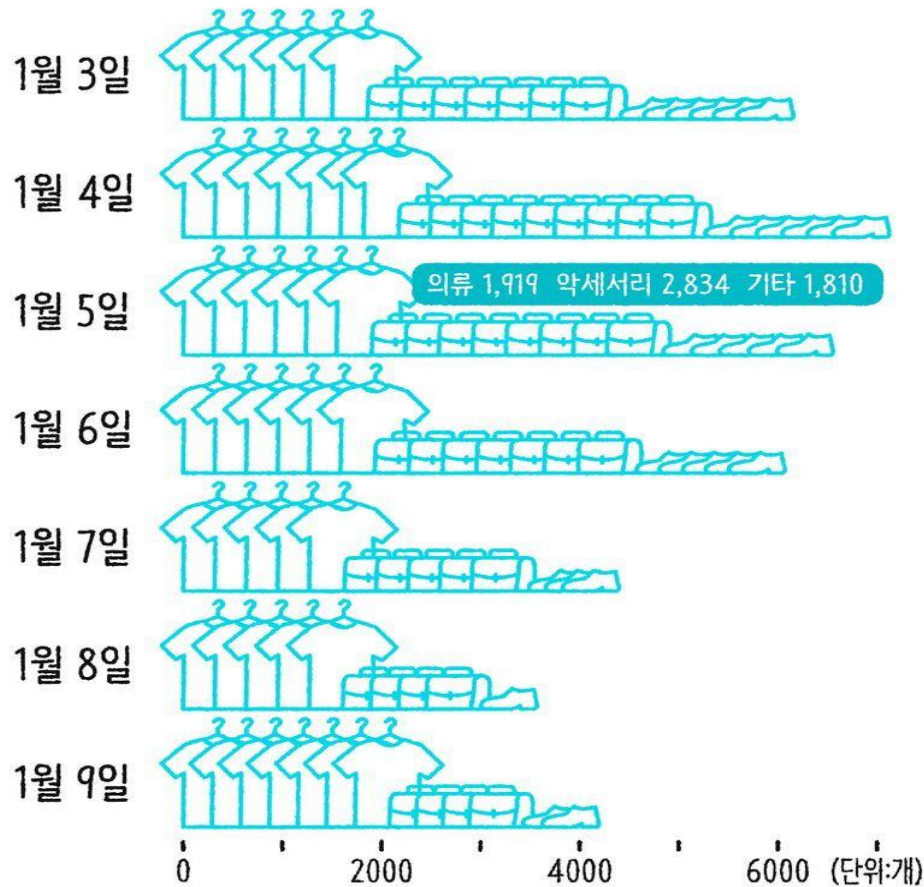
statista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은 연평균 800억 벌 정도 옷 구매함.  
패스트 패션이 흥한 이후  
세계 의류생산량은 2000년 500억 벌에서  
2014년 1천억 벌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2014년 의류 구매량 역시  
2000년에 비해 **평균 60% 높아**졌음.





## SHEIN(쉬인)이라는 브랜드?

SHEIN은 기존 패스트 패션의 2주 사이클을 5일(!)로 줄임. 압도적인 물량 공세에 힘입어 SHEIN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매출이 폭증. 그 덕에 2021년 6월엔 ZARA와 H&M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패스트 패션 업체로 올라섬.

2021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패션 앱이 바로 SHEIN.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4123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4123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아마존을 제친 “SHEIN”

1주일간 SHEIN이 쏟아낸 신상품은 무려 3만 8,025개.  
많게는 하루에 7,000개가 넘었고 적어도 3,500개 이상의  
신상을 찍어냄. 1년 동안 새롭게 만들어내는 제품은 197만  
개가 넘게 됨.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41233&plink=COPYPASTE&cooper=SBSNEWS&wsend](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41233&plink=COPYPASTE&cooper=SBSNEWS&wsend)







**젊음의 상징, 청바지와 티셔츠.**

**당신은 얼마나 자주 티셔츠와 청바지를 사서 입는가?**

**티셔츠와 청바지의 원단은 주로 면이다. 면은 목화(면화)로 만들어지는데 목화 경작은 다른 식물 경작보다 훨씬 많은 물이 필요하다. (목화 재배는 토마토보다 100배 많은 양의 물이 사용된다) 목화밭에 물을 대기 위해 강제로 강의 물줄기를 돌려 물을 대는 경작지가 많기 때문에 강 하류 지역이 황폐해져 '사막화'가 일어나는 곳이 많다.**

**사막화란 기후변화, 인간활동 등으로 사막이 아니었던 땅이 사막으로 확대되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에 위치한 '아랄해'이다.**





(UNECE)에 따르면, 목화는 전 세계 농경지 중 2%에 해당하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재배되고, 전 세계 살충제 사용량의 25%, 농약 사용량의 11%를 사용해 재배되고 있음. 이러한 약품들은 지하수로 흘러 식수로 사용되고 환경을 오염시킴.

이렇게 생산된 옷감이 옷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엄청난 양의 물과 합성염료, 화학약품이 사용되고, 염료와 약품이 뒤범벅된 물은 강과 바다로 흘러가 환경과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유해하며, 생산과정을 모두 거친 옷들은 배와 항공기, 트럭 등으로 전세계 곳곳에 유통되어 포장되고 배송되면서 항공과 선박 산업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시킴.





## 물이 얼마나 필요할까?

티셔츠 1장을  
만들려면



3년 동안  
한 사람이 마실



물의 양

= 2700 L

청바지 1벌을  
만들려면



40개의 욕조를  
채움



물의 양

= 8500 L

섬유 산업 1년간  
운영하려면



18만 9천개의  
수영장을 채움



물의 양

= 3779억 L

출처 : WWF





□ 세탁시 많은 양 세탁하세요!

뉴캐슬 대학교 막스 켈리(Max Kelly)의 연구 결과

“대량의 물을 사용하는 세척 프로그램을 피하고 세탁물을 가득 채워 세탁하는 것이 환경으로 방출되는 미세 섬유유의 양을 줄이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2019; doi : 10.1021 / acs.est.9b03022  
출처 : Newcastle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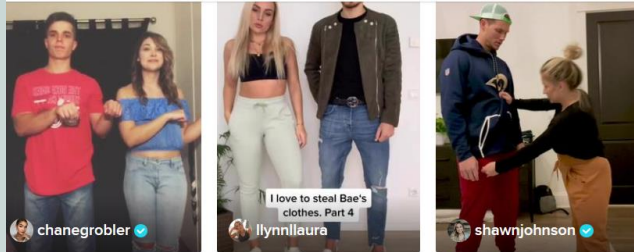


# □ 소각하는 재고 의류, 패션산업의 낭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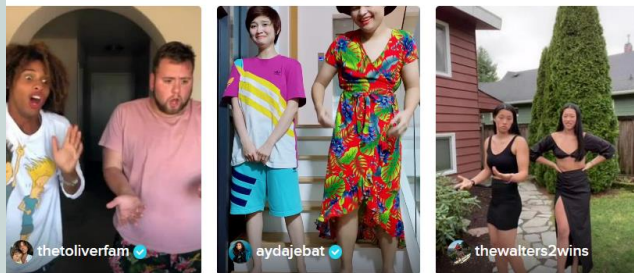
“버버리” (최근 5년 동안 약1328억원어치 재고 소각). 다른 명품 브랜드도 마찬가지임.

생산된 의류의 30%가 팔리지 않고 매립지로!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2019; doi : 10.1021 / acs.est.9b03022  
출처 : Newcastle University



#clotheswap has me dea... Bae's clothes - my clothes!... sorry @andrewdeast y...



t's freaky Friday ... Dia sanggup buat demi ka... Reply to @justnikki0531 "I ...



## 최신 패션 트렌드가 궁금하다면? #틱톡 패션을 소개합니다!

창간 8주년

세상을 보는 시선  
Viewers



FINANCE

BIZ

JOY

Think

Natio

• BIZ • 생활경제

## “패션유통계도 새벽배송” 소녀나라아프랑스, 업계 지각 흔들어

11일부터 새벽배송 서비스 시작, 12일 새벽 첫 배송 마쳐

서주원 기자 승인 2020.05.12 22:20 의견 0



여성 의류 전문 쇼핑몰 소녀나라와 아프리카스가 11일부터 새벽배송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

SN패션그룹 패밀리 회사인 소녀나라와 아프리카스는 소녀 감성과 숙녀의 감성을 아우르는 패션 전문 쇼핑몰로서 패션 업계 최초로 새벽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새벽배송은 유명 이커머스 업체들이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 형태로 소비자 호응을 이끈 가운데 여성 의류 쇼핑몰 소녀나라와 아프리카스가 패션 제품 새벽배송 첫 론칭에 나서서 판매 경쟁력을 갖추었다.







곤도 마리에: 정리 수납의 달인

물건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맺는 대상이다.



자동차 구입은 꽃을 꺾는 행위와  
같아. 무엇인가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이며 신분과 자아의 상징이다.

에리히 프롬 [소유냐 존재냐]







# 동물을 입는다는 것









# “퍼(fur)는 더 이상 모던하지 않다”

모피는 낡은 생각을 의미하는 촌스러운 소재가 되었다.  
- 2017 구찌(GUCCI) CEO 마르코 비자리(Marco Bizzarri) -






## <밍크 퍼(FUR)>

- 전체 모피중 80-85% 정도가 공장식 농장에서 생산됨
- 밍크의 자연수명은 10년이지만 소재로 만들기위해 태어난 밍크를 6개월만에 죽임.
- 1kg의 밍트 퍼(fur)를 만들기 위해 11마리 이상의 밍크가 필요함.
- 밍크사료(닭/ 어류 사용으로 해양생물 개체수 위협하기도 함)
- 인조모피에 비해 10배 정도 환경에 영향을 끼침.
- 농장에서 도주한 밍크의 생태계 교란
- 세계1위 모피생산국 “중국”

<https://youtu.be/yRAWQx1NC5s>  
[Inside a Russian fur farm - BBC News - Bing video](#)  
[Fur Farm Accused of Animal Cruelty - Bing video](#)





# 모피 의류가 탄생하기까지... 그 끔찍한 광경

동물권단체 '케어', 14일 광화문에서 모피반대 캠페인 개최

16.12.15 14:47 | 최종 업데이트 16.12.15 14:47 | 조세형(unchi) ▼

좋아요 0개

+ 크게 | - 작게 | 인쇄 | URL 줄이기 | ☆ 스크랩

원고료로 응원하기

1390

23

댓글 달기



거대하고 빨라진 패션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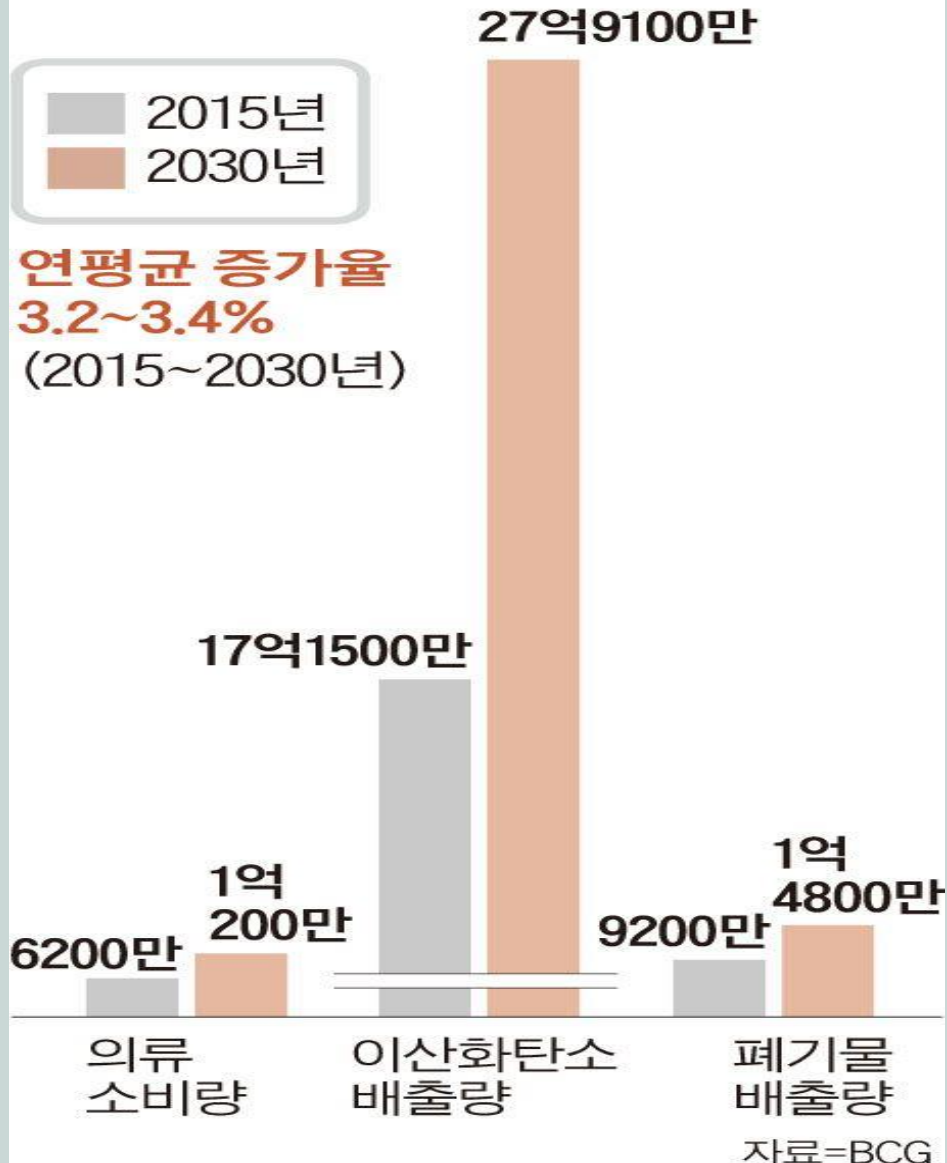


'세계 1위' 모피 생산국, 중국 모피농장의 실체 <글로벌, 지금> <글로벌, 지금> 기사본문 - 뉴스펭귄 (newspenguin.com)



# 글로벌 의류 소비 및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전망

※단위 톤(t)



## (컨설팅기업)

전 세계 의류 소비량은 2015년 기준 6200만톤(t)에 달하며, 2030년에는 1억200만t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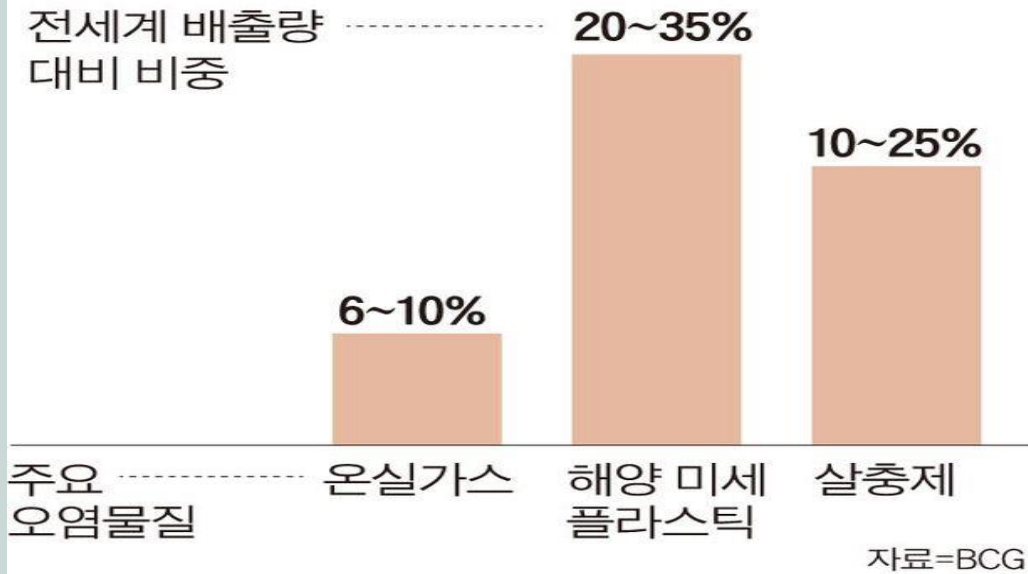
인류가 필요 이상의 옷을 과도하게 생산·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류 사용률’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의류 사용률은 옷을 구매한 뒤 더 이상 입지 않게 될 때까지 평균 몇 번이나 입는지 수치화한 것이다.

영국 엘런맥아더 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2~2016년 전 세계 의류 사용률은 36%나 감소했다. 의류 사용률이 하락하면서 버려지는 옷도 2015년 9200만t에서 2030년 1억4800만t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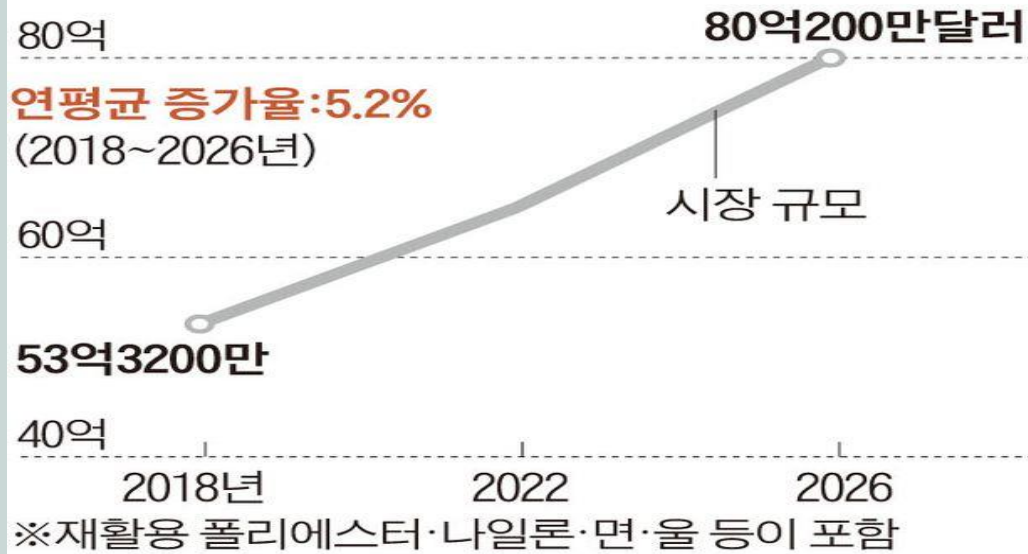


이 옷들, 현대차 제작 후 남은 가죽으로 만든 겁니다 - 조선일보

## 섬유패션산업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 비중



## 전세계 재활용 섬유 시장 전망



자료=얼라이드마켓리서치

## (시장조사 기관 얼라이드마켓 리서치)

세계 재활용 섬유 수요는 2018년 53억3200만달러(약 6조4000억원)에서 2026년 80억200만달러(약 9조6000억원)로 연평균 5.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선 효성티앤씨, 티케이케미칼, 휴비스 등이 재활용 섬유를 만드는 대표 기업인데 2020년 생산량이 1만t 정도다.

국내에서 처음 재활용 원사를 개발한 효성티앤씨는 패션 스타트업 폴리츠마마와 협력해 버려진 페트병으로 실을 뽑아 친환경 가방을 만드는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이 밖에 버섯 뿌리의 균사체를 활용한 가죽 생산(볼트스레드), 커피 찌꺼기를 통한 셔츠 제작(코알라트리), 자기장 발생 원리를 이용한 염색 기술(FS이노베이션) 등 의류 제작에 신기술을 활용하는 '클로딩 테크(clothing tech)' 스타트업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패션 업체들의 친환경 정책이 '그린워싱(green washing · 위장 친환경)'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옷들, 현대차 제작 후 남은 가죽으로 만든 겁니다 - 조선일보





# 모피 의류가 탄생하기까지... 그 끔찍한 광경

동물권단체 '케어', 14일 광화문에서 모피반대 캠페인 개최

16.12.15 14:47 | 최종 업데이트 16.12.15 14:47 | 조세형(unchi) ▼

좋아요 0개

+ 크게 | - 작게 | 인쇄 | URL 줄이기 | ☆ 스크랩

원고료로 응원하기

1390

23

댓글 달기



['세계 1위' 모피 생산국, 중국 모피농장의 실체 <글로벌, 지금>글로벌, 지금 <기사본문 - 뉴스펭귄 \(newspenguin.com\)](#)

거대하고 빨라진 패션 산업





## 방글라데시, 눈물의 가족생산



"지구 상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5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오염의 주범은 도시에 밀집한  
200여 개의 가족 공장들.

매일같이 화학물질을 뿜어내고 정화하지 않은 폐수를  
강물에 그대로 흘려 보냅니다.

아이들은 폐기물 더미를 놀이터 삼아 놀고, 일부 주민들은  
재활용 쓰레기를 줍거나 오염된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가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크롬 황산, 비소 같은 독성  
화학물질이 사용되는데, 근로자들은 장갑이나 마스크  
같은 보호 장구 하나 없이 맨손, 맨발로 작업합니다.



[글로벌 인사이드] 방글라데시 눈물의 가족생산, 독성 화학물질 노출 위험 ↑ ([imbc.com](http://imbc.com))



## Fur-free fashion | 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 A

- [Abercrombie & Fitch](#)
- [Adolfo Dominguez](#)
- [Aerie](#)
- [Aeropostale](#)
- [Albert Nipon](#)
- [Alexander McQueen](#)
- [Alice and Olivia](#)
- [Alloy](#)
- [Amanda Pearl](#)
- [American Apparel](#)
- [American Eagle Outfitters](#)
- [Angelrox](#)
- [Ann Taylor](#)
- [Anne Klein New York](#)

### B

- [Bahar Shahpar](#)
- [Balenciaga](#)
- [Banana Republic](#)
- [Bandolino](#)
- [Baracuta](#)
- [Bass](#)
- [Bealls](#)
- [bebe](#)
- [Belstaff](#)
- [Benetton](#)
- [Bergdorf Goodman](#)
- [Betsey Johnson](#)
- [Bettie Page Clothing](#)
- [Beyond Skin](#)

Jump ahead to: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This list was last updated Feb. 1, 2022.**





세계최대 양모 생산국 호주...양 개체수 100년來 최저

출처 : <https://sedaily.com/NewsVlew/1VO7E3WWLY>

거대하고 빨라진 패션 산업

고품질 캐시미어 생산하나 사막화의 원인 되기도

몽골에서 염소 사육이 증가한 이유 - 오마이뉴스  
([ohmynews.com](http://ohmynews.com))



## SMCP, 다운과 가죽 사용 중단 선언

2023-01-03 유재부 패션 에디터 UB@fi.co.kr

모피와 이그조틱 스킨 사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산드로, 마쥬, 끌로드 피에로, 푸르삭의 소유주인 패션그룹 SMCP는 이제 다운과 깃털의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 섬유재벌그룹 산둥 루이가 5년 전에 인수한 프랑스 중견 패션 그룹 SMCP는 PETA 프랑스에 2023 가을/겨울 시즌까지 그들의 제품에서 모피를 비롯 악어와 뱀피같은 파충류 가죽을 의미하는 이그조틱 스킨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페타(PETA)는 43개국에서 1,684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SMCP 그룹의 약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SMCP

sandro maje claudie pierlot





## **G7 패션 협약 주도한 그룹 케링, '2022년 FW에 모피는 없다' 구찌, 생로랑 등 환경보호를 향한 다양한 발자취 볼보의 2030년, 가족 없는 전기 자동차**

- ◆ '모피 OUT' 외친 프랑스 명품 그룹, 케링
- ◆ 환경보호 선두그룹, 케링 속 다양한 브랜드의 발자취
  - ▷ 동물은 우리 친구, 구찌(Gucci)
  - ▷ 미래를 준비하는 생로랑(Saint Laurent)의 자세
  - ▷ 발렌시아가(Balenciaga)가 외치는 지속 가능성 (버려진 어망과 카펫류, 잠금쇠와 지퍼도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작)
  - ▷ 친환경 소재를 사랑한 보테가베네타( Bottegaveneta) (사탕수수과 커피로 제작)
- ◆ '가족과 이별 선언', 볼보



['모피 NO! 가족 OUT' 외친 명품 브랜드들...구찌, 생로랑, 보테가베네타 등 < World Pick < Fashion&Beauty < Culture < 기사본문 - 월드투데이 \(iworldtoday.com\)](#)



#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실천 '지속가능한 패션'





\* 생산자: 조금이라도 해를 덜 끼치는 노력

\* 소비자: 윤리적 소비 (동물을 소비품목으로 취급하지 않기)

“여기 비건 옵션이 있나요?”

“두유로 바꿀 수 있나요?”

“오리털이 아닌 건 없나요?”

세상을 바꾸는 건 예리한 지적보다 작고 담담한 실천일 것이다.

모두 완벽할 수 없기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자.

내가 나의 세계이고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 지속가능한 패션 가이드



세상에 만들어진 물건은 언젠가 필연적으로 쓰레기가 된다.  
폐기까지의 여정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잘 관리해서 사용하기
  - 새 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중하게 고민하기
  - 중고 제품 구매하기
  - 비동물성 제품 구매하기
  - 품질 좋은 제품 구매하기
  -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 선택하기
  - 플라스틱 중 최악인 PVC제품 구매하지 않기
  - 친구들과 패션 아이템 물물교환하기
  - 제품 수선해서 사용하기



**OXFAM**  
옥스팜



2017년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의류 생산단계에서 배출된 폐섬유는 하루에 약 224톤에 달하고, 연간 약 8만 200톤의 폐섬유가 발생합니다. 구두나 가방에 사용되는 폐피혁을 더하면 그 양은 더욱 많아지겠죠. 폐섬유와 폐피혁은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소각처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또한 2008년 연간 5만 4,677톤이던 의류 폐기물은 2014년 연간 7만 4,361톤으로 32.4% 증가했으며, 지금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를 볼까요? 영국의 가정집에서는 연간 30만 톤에 달하는 옷이 버려지고, 매주 1,100만 벌의 옷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폐기된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전 옷이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OXFAM**  
옥스팜



패스트 패션은 단순히 옷을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청바지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 1천500리터가 사용되며, 천을 짜고 염료를 댄 후에 나온 화학물질의 10~15%는 폐수가 되어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식수가 오염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새 옷을 사는 대신 중고를 판매하는 세컨 핸드숍(Second Hand Shop)에서 옷을 산다면 그만큼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패스트패션 반대를 지지하는 참가자들의 서명운동

[내가 버린 그 옷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 옥스팜 \(oxfam.or.kr\)](https://oxfam.or.kr)





## 자원 재순환

일상의 나눔과 자원의 재순환을  
통해 세상의 생명을 연장합니다.



## 재사용 나눔가게

시민 여러분의 가까이에서 자원 재순환과  
나눔을 실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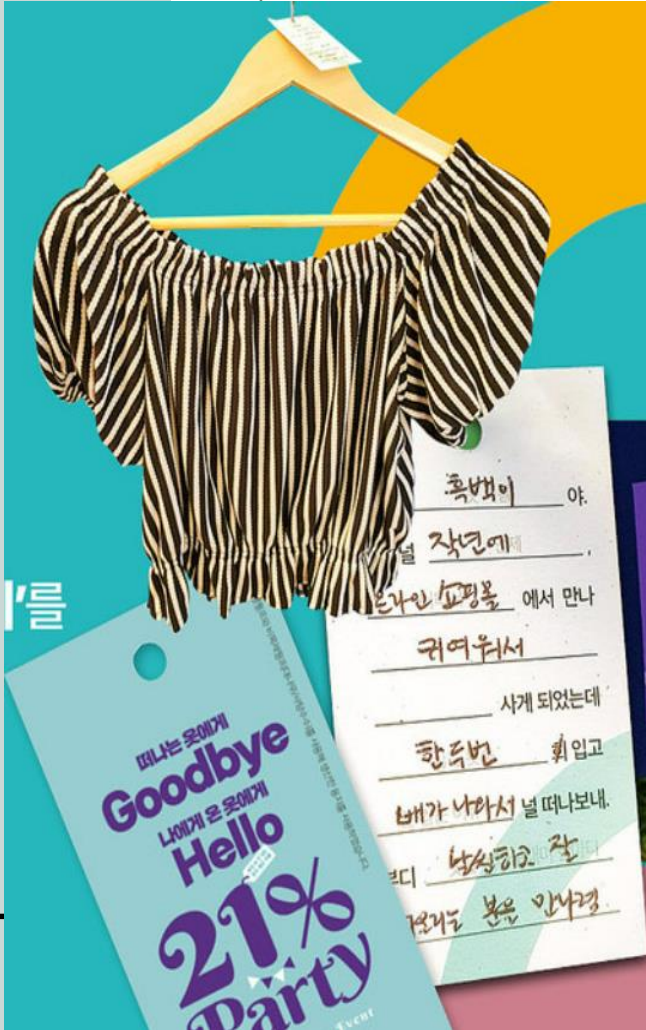
## 되살림사업

저마다의 소중한 사연을 간직한 기증품들이  
모여 순환과 나눔의 씨앗이 됩니다.





다시입다연구소는 패션 산업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알리고  
의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2020년에 시작된 비영리 스타트업입니다.



## 의생활 속 제로웨이스트 실천 이벤트 21% 파티

### ‘21% 파티’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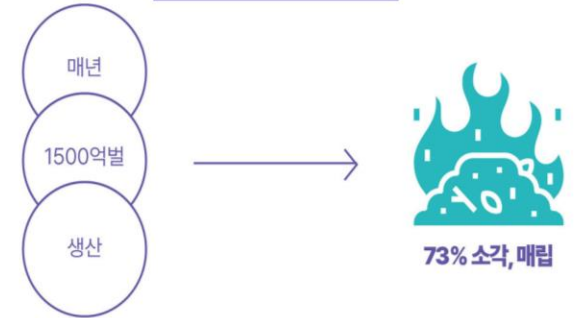
안 입는 옷이 입는 옷이 재화가 되어 새로운 옷을 얻을 수 있는  
대안적 의류 소비 문화 행사 21%파티의 가장 큰 특징은 1:1 물물교환입니다.  
중고 옷 경험을 통해 편견과 거부감을 없애고 건강한 지구 환경을 주도하는 21%파티는  
시장 사회가 유발한 환경 문제를 비 시장적인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 왜 21%파티인가?

세계적으로 매년 1,500억 벌 이상 생산되고 그중 73%는 매립, 소각되어 사라지는 옷.  
버려지는 옷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Recycle)과 새활용(Upcycle)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환경 실천 방법은 바로 재사용(Reuse)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제품은 최대한 수명을 늘려 써서 최소한으로 버리는 것이 지구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 의류 생산 소비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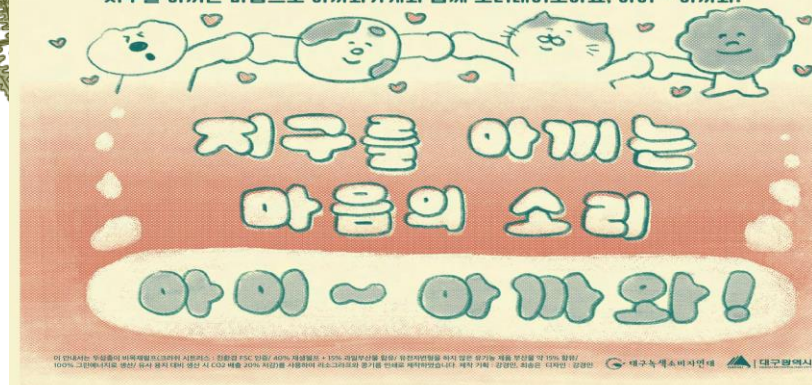


#### 의류의 수명을 늘리는 법





# 초록초록 곳곳







THANK  
YOU!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한  
고민

박진영 신하나 지음



창비  
Changbi Publishers